

프랑스 지리교육에서 크로키의 등장배경과 제도적 위상, 그리고 활용사례*

이상균** · 마갈리 아흐두앙***

The Appearance, Institutional Status, and Utilization of Croquis in French Geography Education*

Saangkyun Yi** · Magali Hardouin***

요약 : 한국에서 지리교육의 위상은 서구의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제도적, 내용적 측면에서 한국 지리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리교육의 위상이 높은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지리교육의 위상이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인데, 프랑스 지리교육에서 핵심역량에 근접하는 크로키에 관해서는 국내 학계에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프랑스 지리 크로키 등장의 역사적 배경, 크로키의 제도적 위상과 비중, 크로키의 활용사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크로키는 60년대 초에 R. Brunet 책의 출판을 계기로 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70년대를 지나면서 프랑스 지리수업의 주된 양식으로 정착되었다. R. Brunet가 제시한 크로키는 보불전쟁에서의 패배 후 프랑스에서 지도읽기라는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 지리교육에서 크로키는 역사-지리 바깥로레아 시험에서 주된 평가 틀로 정착되었으며, 지리수업의 마무리 활동으로 활용되고 있다. 요컨대, 크로키는 ‘공간조직의 이해’라고 하는 프랑스 지리교육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학습활동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프랑스 지리교육, 크로키, 로제 브뤼네, 보불전쟁, 지리평가

Abstract : Geography education has a relatively lower status in South Korea than in Western countries. South Korea needs to review some cases in those countries with a high level of geography education in order to stabilize and improve the geography education in curriculum and content. While France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high status of geography education, scholars of South Korea tend to have little knowledge about croquis close to the key competence in french geography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croquis for French geography education, its institutional status and importance, and its utilization. This research reveals that croquis drew academic attention in France since R. Brunet published his book *Le croquis de géographie régionale et économique* in early 1960s and made a principal mode of geography classes in France in 1970s. It can be said that croquis, presented by R. Brunet, caused a greater sensation in emphasizing the practical aspect of map-reading after the defeat in the Franco-Prussian War. As a result, croquis was settled as a major evaluation framework for history and geography in baccalaureate; now it is used as closure activities in geography classes. To sum up, I contend that croquis is a learning activity that best meets the goal of geography education in France: ‘to understand spatial organization’.

Key Words : French geography education, Croquis, Roser Brunet, Franco-Prussian War, Geography evaluation

*이 논문은 2017년 한국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kyigeo@gmail.com)

***프랑스 브르타뉴 교사양성전문대학원 지리과 부교수(Maître de Conférence-HDR de géographie et aménagement/UMR ESO, ESPE de Bretagne, magali.hardouin@espe-bretagne.fr)

I. 서론

프랑스 지리교육의 특징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크로키이다. 이는 60년대 초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70년대를 지나면서 하나의 수업활동 양식으로 정착되어 오늘날 프랑스 지리교육에서 핵심역량에 가까운 활동으로 인식된다(이상균 · 정프랑수아 페민느, 2014). 예컨대, 크로키는 지리논술(La Composition)과 함께 지리수업의 마무리 학습활동으로서의 기능이 있으며, 대입시험(Le Baccalauréat)에서도 주된 평가 틀로 정착되었을 정도로 평가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크로키는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태를 빠르게 그린 그림’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Wikipedia에 따르면, ‘프랑스어에서 온 용어로 살아있는 모델을 몇 분 안에 신속하게 그리는 것으로 스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오늘날 프랑스 지리교육에 정착된 크로키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프랑스 지리교육에서는 크로키(croquis) 외에도 지도(carte), 쉐마(schéma)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크로키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기 전에 이들 세 명칭 간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지리학자 Gérard Dorel에 따르면, 지도, 크로키, 쉐마의 정의와 그들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도는 그 형태가 다양한데,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장소의 위치와 지리적 현상의 범위를 탐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지도는 기호와 카토그래피의 원칙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종의 지도언어로 이루어진 지적인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크로키는 베이스 맵 위에 정보를 분류하고, 위계를 구분하고, 모형화하고, 역동적 관점에서 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분석적 방식을 전제로 한다. 쉐마는 그래픽의 측면에서 보면 크로키보다는 훨씬 더 단순화시킨 것으로 공간의 구조와 역동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Philippe Sierra, 2011; Marie-Claire Robic · Muriel Rosenberg, 2016). 지도와 크로키는 쉽게 구분이 되지만, 크로키와 쉐마를 구별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크로키와 쉐마는 도식화의 측면에서 보면 비슷하지만 크로키는 쉐마를 포함하는 상위 카테고리라 볼 수 있으며, 쉐마는 크로키보다 훨씬 더 단순화, 구조화된 그래픽

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크로키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프랑스 지리교육의 한 부분인 크로키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는데, 크로키와 유사한 학생들의 지도교육 또는 지도그리기 활동을 통한 지리수업 방법 탐색 등과 같은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일부 이루어졌다(김주환 · 오금숙, 1997; 윤옥경, 2010; 박진영 · 이보영, 2011; 윤옥경, 2013). 그러나 프랑스의 크로키와 같이 지리학습의 탐구논리와 직결되는 수준에서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지리교육의 위상이 높은 국가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프랑스 지리교육에 관해서는 문남철(2002)의 연구를 시작으로 부분적으로 국내 학계에 소개되었다(문남철, 2002; 이상균, 2009; 이상균 역, 2009; 이상균, 2010a; 2010b; 이상균 · 권정화, 2011; 이상균, 2012; 이간용, 2013; 이상균 · 정프랑수아 페민느, 2014). 프랑스 지리 크로키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긴 했지만(이간용, 2013; 이상균, 2014), 제대로 연구된 적은 없는 상황이다.

프랑스에서 크로키에 관한 논의는 Roger Brunet(1962)의 책이 출간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¹⁾ 크로키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제도적 위상, 지도학적인 특징이나 학습방법 등 기술적인 측면에만 주목한다면 크로키의 본질적 측면을 놓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크로키가 프랑스 지리교육계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크로키가 갖고 있는 유용성 측면의 의미와 크로키가 오늘날 프랑스 지리교육에서 핵심역량에 가까운 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크로키는 지식의 구조화 측면에서도 한국의 지리교육계가 특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먼저, 2장에서는 크로키의 도입과 관련된 역사적 측면으로서 보불전쟁(1870) 직후 프랑스에서 지리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정식교과로 도입되었던 직접적인 배경과 1962년에 Roger Brunet이 제시한 크로키와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크로키의 위상과 비중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교과서 단원을 사례로 학습의 마무리 활동으로서의 크로키와 대입시험을 사례로 평가 도구로서의 크로키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수업매체로서의 크로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지리수업을 사례로 크로키의 활용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근대 프랑스 지리교육에 관한 역사적 측면은 Graves(1957: 이상균 역, 2009에서 재인용)의 연구와 Lefort(1992) 등의 연구를 비롯한 영국과 프랑스의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측면, 학습활동, 평가적 측면과 관련되는 크로키의 성격에 대해서는 기 연구된 국내 연구성과와 프랑스 문헌, 그리고 프랑스 지리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크로키 도입의 역사적 배경

두 번째 장에서는 보불전쟁에서의 패배를 기점으로 프랑스에서 지리교육의 위상이 급격하게 강화되었던 배경과 프랑스 지리교육에서 지도읽기 등 지리의 실용적 측면에 관심을 가졌던 당시의 상황으로부터 크로키의 등장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1830년대 무렵부터 지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의 지리교육은 독립적인 분야라기보다는 역사교육의 보조적인 성격이 강하였다(표 1). 그러나

보불전쟁(1870)의 패배 이후 상황은 급반전 되었다. 전쟁의 패인을 조사하면서 당시 프랑스의 정부당국에서는 프랑스 장교들의 지리적인 무지가 주된 패인이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당시 지리학자이면서 경제 전문가였던 Emile Levasseur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 당시 프랑스 장교들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전투 당시 장교들에게 지도를 보여주었을 때 당장 지도읽기를 배우느니 차라리 까막눈으로 진격하는 게 낫다면서 지도를 뿌리쳤던 장교들도 있었다”(Graves, 1957: 이상균 역, 2009에서 재인용).

당시 프랑스의 여론은 1870년의 패인을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 즉, 장교들이 지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문제를 중등학교 교육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 언론인이었던 Francisque Vial(1869-1940)은 “우리를 패배시킨 것은 독일의 초등학교 교사”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프랑스인들의 철저한 자기비판은 결국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이어졌고, 지리는 역사와 함께 주요 교과목들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프랑스 지리교육에서는 지도읽기와 지도 활용 능력이 강조되었다(이상균 · 권정화, 2011). 1882년, 당시 정치인이자 교육자였던 Ferdinand Buisson(1841-1932)

표 1. 프랑스 지리교육과정 변천사(19세기)

연도	중1	중2	중3	중4	고1	고2	고3
1830 - 1848	고대사 고대지리	고대사 고대지리	로마사 당시의 지리	중세사 중세지리	근대사 근대지리	1789년까지의 프랑스사와 당시의 지리	-
1852	자연지리, 정치지리, 행정지리, 경제지리						-
1854	문서상에는 “기후, 건물의 방향, 문화, 산업, 교역, 삶의 방식, 습관, 경쟁관계에 있는 민족, 다양한 지역들 간의 차이점 등을 바탕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개념중심 학습의 필요성” 제시						-
1857	새 교육과정에 따르면, “지구상의 자연지리, 정치지리 일반을 알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진술						-
1865	지리교육의 위기						-
1872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프랑스	유럽의 자연지리, 정치지리, 경제지리	계통지리,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자연지리, 정치지리, 경제지리	프랑스 및 식민지의 자연지리, 정치지리, 경제지리	-
1880	유럽 및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프랑스	유럽의 자연지리, 정치지리, 경제지리	계통지리,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자연지리, 정치지리, 경제지리	프랑스 및 식민지의 자연지리, 정치지리, 경제지리	-
1890	세계 및 지중해 연안의 계통지리	프랑스	계통지리,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프랑스 및 식민지의 자연지리, 정치지리, 경제지리	-

* Lefort(1998)와 Adoumié(2001)의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은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지도에 익숙해지게 가르치지 못했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도 읽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다. 1870년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Jules Simon(1814-1896)은 1874년에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였다.

“우리 군대는 지리(지도)도 모르고 독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 프랑스 군대와는 대조적으로 독일 장교들의 대부분은 첨단 지도를 갖추고 있었으며, 심지어 많은 장교들이 프랑스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비통한 일이다. 나로서는 지리교육 및 외국어 교육의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Audigier *et al.*, 2005:297)

1872년의 개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지도교육을 포함한 지리교육을 영속적으로 국가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리교육에서 지도 활용의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즉, 지난 수 십 년간 비달 드 라 블라슈가 제작한 지도는 교실 벽에 걸려 있었지만, 정작 지리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Audigier *et al.*, 2005). 지리학과 지도제작

분야에서 프랑스는 세계적인 국가였지만, 학교에서는 지도읽기가 포함된 지리교육에 무관심함으로써 장교들의 지리적 무능과 전쟁에서의 패배로 이어진 것은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표 2).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부까지 프랑스 지리교육은 내용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예컨대, 1880년대 후반에는 경관 개념이 교육과정에 도입되었고, 1890년 교육과정에는 지리교육의 목표로 상상력 교육, 지리적 추론능력이 추가되었다. 1905년에는 세계의 주요 경제대국이 고3 과정에 도입되었고, 1925년에는 학령 단계별로 학습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초등학교에서의 관찰 위주의 학습, 중학교에서의 자료 분석과 설명, 고등학교에서의 일반화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38년 교육과정에는 계통지리가 강조되었으며, 1943년에는 지리의 교육적 가치와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지리교육의 시수가 늘어나기도 하였다(이상균, 2012).

이 논문의 주된 연구대상인 크로키는 1962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즉, 다년간 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쳤던 프랑스의 지리학자 Roser Brunet가

표 2. 프랑스 지도제작 변천사: 1696-1940

연도	주요 이슈	세부 사항
1696	군대 엔지니어 부서 창설	행정적으로는 전쟁부처에 속하고, 대축척 군대지도 제작 담당. 18세기에는 “엔지니어 지리학자 부서”로 명칭변경.
1699	프랑스 과학아카데미의 회원이 된 자크 카시니	카시니는 지구 표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구를 통해 근대 카토그래피의 창시자가 됨.
1733-1744	프랑스의 삼각측량	이것은 최초의 기하학적인 프랑스 지도(1/86,400 축척)를 제작하는 모체가 된다. (일명 “카시니 지도”)
1759	요한 람베르트의 원추도법 시스템 제안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람베르트가 원추도법의 기원이 된다.
1815	카시니 지도 완성 (1748년 착수)	181장의 지도(1/86,400 축척)로 프랑스 국토 전체를 커버. 19세기에 제작된 유럽 국가들의 국가지도는 카시니의 지도로부터 유래.
1818-1882	참모본부 지도 제작	1/80,000 축척으로 제작된 282장의 지도로 전 국토를 커버. 지형은 경사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조밀한 선으로 표시.
1863	새로운 삼각측량	이것은 참모본부 지도의 최종 시리즈 제작을 위해 사용.
1901-1930	1/25,000 프랑스 지도 제작	먼저, 1/50,000의 대축척 프랑스 지도를 제작한 후 1/25,000 지도 제작. 이 지도는 대축척 및 중축척(1/50,000, 1/100,000, 1/250,000)의 다른 프랑스 지도 제작의 토대가 된다.
1930	최초의 항공사진 활용	이것은 지형측량작업을 현저하게 발전시켰다.
1938	“내무부 지도” 발행	1/100,000의 다색지도는 프랑스 전 국토를 커버하며, 일반대중도 사용 가능. 이것은 또한 “지방도”라고도 불린다.
1940	국립지리원 창설	이것은 군대의 지리부서의 기능을 대신함.

출처 : Adoumié, 2001:146.

1962년에 크로키에 관한 책을 출간하면서 프랑스 지리 교육에서 크로키는 중추적인 학습매체 또는 학습활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²⁾ R. Brunet의 책에 대한 서평을 썼던 Armand(1963)에 따르면, “크로키는 한 장의 지도 위에서 지리적인 현상, 그들 간의 위계와 위치 사이에서 관계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한 지역에 관한 모든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해 준다. 따라서 크로키는 분석, 종합,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인 것이다. 이 책은 그 무엇에 비할 데 없는 교육적 가치 또한 갖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이 분야에서 어떤 안내서도 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R. Brunet의 책으로 어려운 부분을 메울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들에게도 좋은 가이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 책의 출판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놓았다.³⁾ R. Brunet가 제시한 크로키는 보물전쟁에서의 패배 후 지도읽기라는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지리학자 Péguy(1962)는 R. Brunet의 책이 나온 직후, 다음과 같은 짧은 논평을 제시하였다. “지역 지리학과 종합적 성격의 지리학 연구가 프랑스 지리학의 명성을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성격의 연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표현 방식으로서의 크로키에서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R. Brunet가 진술하고 있는 크로키는 표현의 한 가지 형태로서 긴 텍스트보다 더 나은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경관이나 한 나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종이 위에 표현하고자 할 때, 카토그래피는 역설적으로 지리에 관한 가장 문학적인 테크닉을 추구한다.”

오늘날 프랑스 지리교과서를 보면 마치 화려한 잡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천연색의 사진과 지도 등 다양한 학습자료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는 1930년대에 있었던 교과서 집필에 관한 혁신의 결과이다. 당시 교과서는 대학교재와 같이 작은 글씨가 대부분이었으며 시각자료는 거의 없었는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차원에서 지리와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의 지면 구성을 대폭 개선하였다(이상균, 2012). 그 후, 60년대 초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R. Brunet의 책으로 크로키가 소개됨에 따라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 방식은 점차 학생활동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교과서의 단원 후반부에는 학습의 정리활동으로서

크로키가 점점 더 비중있게 자리잡게 되었다.⁴⁾ 크로키는 70년대를 지나는 동안 현저한 진화를 거쳐 오늘날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Marie *et al.*, 2011). 크로키의 지리교육적 위상과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III. 제도적 측면에서 크로키의 위상과 비중

어느 나라든 간에 초·중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과 수업의 골격을 좌우하는 것은 대입시험의 양식과 성격일 것이다. 프랑스의 대입시험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Le baccalauréat)는 한국과는 달리 논술과 구술로 구성된다. 따라서 학교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많은 질문을 하여 학생 스스로 탐구하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은 그들의 생각을 조리있게 발표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프랑스의 지리수업 또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되며, 수업의 마무리 활동은 지리논술과 크로키를 통해 이루어진다(이상균, 2012).

바칼로레아 시험시간은 총 4시간인데, 시험은 긴 시험과 짧은 시험으로 구분된다. 프랑스에서는 역사와 지리가 따로 떨어져있지 않고 함께 묶여 있어서 대입시험에서도 두 과목이 서로 연동된다. 역사-지리 시험은 크게 논술(La composition), 자료통합학습(L'étude d'un ensemble documentaire), 크로키(Le croquis)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먼저 긴 시험 과목으로서 역사와 지리 중 한 분야를 선택하게 된다. 긴 시험에서 지리를 선택하였다면 짧은 시험은 자동으로 역사가 되는 것이고, 긴 시험에서 역사를 선택하였다면 짧은 시험은 지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리를 배우는 동안 지리 논술과 크로키에 대한 노하우는 필수적으로 습득해야만 한다(표 3). 이처럼 프랑스에서 크로키는 지리 평가의 틀로서 그 위상이 대단히 크다 할 수 있다.

크로키는 크게 3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과정으로서 주어진 주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범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된 각각의 정보 옆에 범례를 배치시키고 크로키를 완성하는 것이다. 크로키 활동에 관한 각각의 단계별 세부사항은 표 4와 같다.

표 3. 역사-지리 바깥로레아(대입시험) 양식

제한시간	지리영역	역사영역
긴 시험: (약 3시간)	2개의 지리 논술 중 택 1 ——— 또는 ——— 지리 에서 étude d'un ensemble documentaire	2개의 역사 논술 중 택 1 ——— 또는 ——— 역사 에서 étude d'un ensemble documentaire
짧은 시험: (약 1시간)	2개의 역사 document 설명하는 것 중 택 1	2개의 지리 크로키 중 택 1

출처 : Joyeux *et al.*, 2007:8.

표 4. 크로키 작성의 방법과 절차

1시간	단계	도움말
준비 (15분)	1. 주제분석 및 문제제기	☐ 초안을 위한 문제제기 작성을 권한다. 나중에 초안은 당신이 선택하게 될 범례로 안내할 것이다. 범례의 다양한 부분들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제기는 당신이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이 범례에 대한 추측 기능을 하게 된다. 즉, 각 파트의 제목은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이 잘 연결될 수 있게 해준다.
	2. 표의 형식으로 초안작성	☐ 구상은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 후에 하는 것이다. 즉, 당신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데, 뒤죽박죽 놓여진 모든 지도학적 정보들은 당신이 주제에 핵심에 접근하게 해 준다. ☐ 정보 및 범례의 수는 최소 10개 정도로 한다. ☐ 주제에 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들은 구상하면서 분류될 수 있다. ☐ 범례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 그것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혼동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교과서 맨 끝을 참조할 것). - 선으로 된 범례는 교통 및 흐름의 인프라를 처리한다. - 점으로 표시되는 범례는 모양과 색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 단계적인 색상 표현은 다양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가장 진한 색상은 가치가 가장 큰 것을 의미. ☐ 색상의 선택은 그 자체로 강한 인상을 준다. 밤색이 고지대를 표현하는 반면, 푸른색은 천연공원이나 농업공간을 떠올리게 해준다.
크로키 활동 (45분)	3. 범례결정	☐ 범례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선택된 범례는 초안작성을 위한 것으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두세 파트로 구성되며, 잘 구분된다. ☐ 각각의 범례는 해당되는 정보의 옆에 배치시켜야 한다.
	4. 크로키 완성	☐ 크로키의 제목은 필수적이다. 제목은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필요한 자료: - 일부 범례의 윤곽을 잡기 위한 것으로 종이에 그을 연필 - 색연필 - 이름과 점으로 된 범례를 표현할 때 쓸 수성펜 - 경우에 따라서는 원을 그리기 위한 normographe나 컴퍼스 ☐ 제안: - 바다와 대양은 색칠하지 마시오. - 지역적인 스케일에서 국가, 바다, 대양의 모든 이름은 대문자로 수평하게 써줄 필요가 있다. 강은 물색깔에 맞게 소문자로 쓴다. - 하늘색 계통의 색은 물과 관련된 현상을 표현할 때 쓰며, 푸른색 계통은 농업과 관련된 것을 표현할 때 쓴다.

출처 : Joyeux *et al.*, 2007:11.

오늘날 프랑스의 중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는 크로키가 학습의 마무리 활동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⁵⁾ 먼저 중학교 수준의 지리교과서에서 크로키는 각 단원의 뒷부분에 배치되어 학습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크로

키 자체의 연습도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그림 5). 프랑스의 지리교과서에서 텍스트로 쓰여진 본문은 최소한만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면은 사진, 지도, 읽기자료, 통계자료, 그리고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안내해 줄 수

표 5. 교과서 단원구성 및 크로키의 지면배치 특성(중3)

챕터제목		미국 중심의 세계지도	
학습내용	삽화	사진 (영화 포스터)	사진 (잡지 표지)
	삽화		
- 310 -		- 311 -	
자료학습		사진 (맨하탄: 뉴욕의 중심)	
지도	범례	미국지도	학생활동 (질문)
사진 (공항)	용어정의		범례
- 312 -		- 313 -	
자료학습		사진 (실리콘밸리)	
미국지도 (고도의 기술력)	읽기자료	지도 (실리콘밸리)	학생활동 (질문)
용어정리			학습방법
- 314 -		- 315 -	
자료학습		지도 (연안/내륙교통)	범례
사진 (휴스턴)	읽기자료	사진 (마이에미 항구)	학생활동 (질문)
지도 (멕시코만)			학습방법
- 316 -		- 317 -	
지도로부터 크로키로 - 아메리카 국토 공간 -			
지도 (아메리카 정주패턴)	크로키 실습 (세계화 속에서의 아메리카 국토)		
지도 (세계를 향해 개방된 산업공간)			
1단계 (크로키 방법 안내)		2단계 (크로키 방법 안내)	
- 318 -		- 319 -	

출처 : Ivernel *et al.*, 2011.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크로키는 중학교 수준보다는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제목도 ‘바깥로레아 대비’ 등과 같은 표제가 함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면을 차지하는 비율도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훨씬 넓다. 요컨대, 프랑스 지리교육에서 크로키는 학습의 마무리 활동으로서 지리논술과 함께 주된 학습활동으로 정착되었다. 크로키는 특히 영토(도시, 지역, 국가), 사실들 간의 관계, 변화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데 적절한 매체로 인식되어 오늘날 프랑스 지리교육에서는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이상균·정프랑수아 메민느, 2014).

IV. 지리수업에서 크로키의 활용사례

프랑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재량이 최대한 주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서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학년 초에 자신만의 연간 교수학습과정안을 스스로 구성하여 학생들을 가르친다. 수업안을 준비하면서 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유발이다. 지리교사는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컨대, 미국 단원을 가르칠 경우, 우선 교사는 미국 지도를 보여준 후, 미국에 관한 짧은 동영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나서 교사는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후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그리고 그룹별로 충분히 토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잠시 후, 교사는 질문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하게 한 후, 교사는 최종적으로 학습내용을 정리해준다(이상균, 2009). 프랑스 지리교육에서는 학습의 마무리 활동으로서 지리논술과 크로키가 활용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크로키에 한정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프랑스 지리교과서 단원구성을 보면, 크로키는 각 단원의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어서 해당 단원의 학습정리의 성격과 평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교사는 크로키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10페이지 내외의 활동지를 미리 준비한다. 활동지는 크로키 실습을 위한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빈칸 채우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크로키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짜여진 일종의 모듈로 볼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크로키를 완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수업 후에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크로키를 취합하여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한 후 학생들에게 돌려주어 자신들이 무엇을 틀렸는지 확인하게 한다.

그림 1과 2는 ‘세계화의 중심에 있는 미국’이라는 주제의 지리수업을 크로키로 작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⁶⁾ 각 단계별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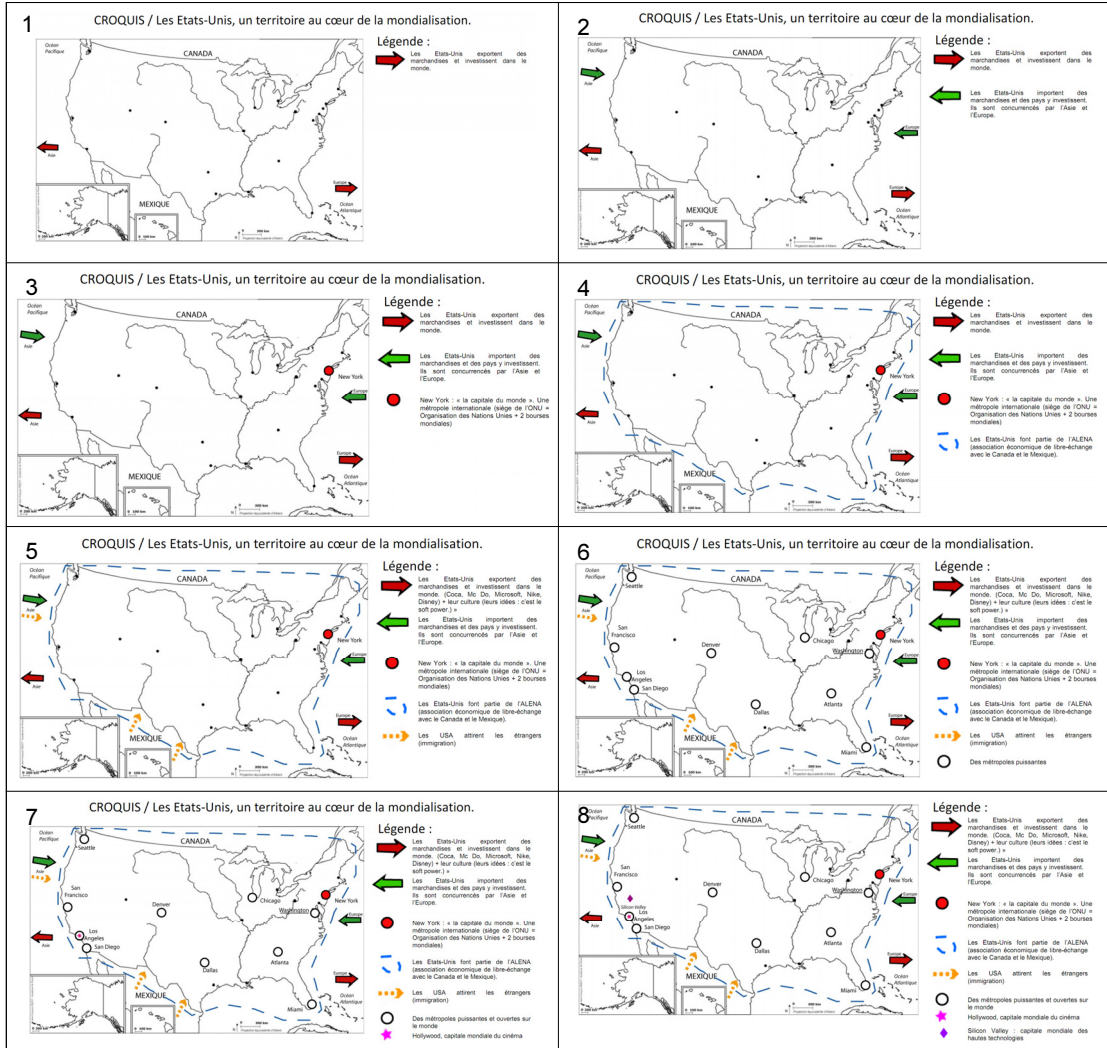


그림 1. 크로키의 방법과 절차 사례 (1)

1. 미국은 전 세계에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을 투자한다(슬라이드 1). 2. 미국은 상품을 수입하고 투자자들을 받아들인다. 미국은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 경쟁한다(슬라이드 2). 3. 뉴욕: 세계의 수도, 유엔 본부와 세계 2대 증권거래소가 있는 거대도시이다(슬라이드 3). 4. 미국은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가입되어 있다(슬라이드 4). 5. 미국은 이민자들을 유인한다(슬라이드 5). 6. 주요 메트로폴(슬라이드 6). 7. 할리우드: 세계 영화의 수도(슬라이드 7). 8. 실리콘밸리: 세계 첨단 기술의 수도(슬라이드 8). 9. 북동 메갈로폴리스(슬라이드 9). 10. 주요 허브 공항(슬라이드 10). 11. 활동적인 주요연안(슬라이드 11).

12. 북동지역: 의사결정, 산업의 중심, 그리고 세계화에 아주 근접해 있는 지역(슬라이드 12). 13. 선벨트: 경제력과 인구성장에 있어 역동적인 지대. 세계화에 아주 근접해 있는 지역(슬라이드 13). 14. 농업지역: 세계화에는 다소 덜 영향을 받는 지역(슬라이드 14). 15. 관광지: 세계화에는 거리가 먼 지역(슬라이드 15). 16. 국내 이주: 선벨트 공간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사람, 자본, 기업이 모여들으로써 더욱 강화된다(슬라이드 16).

이상의 활용사례에 비추어, 프랑스 지리교육의 명시적인 목적은 지리 교육과정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리적 안목 함양' 또는 '공간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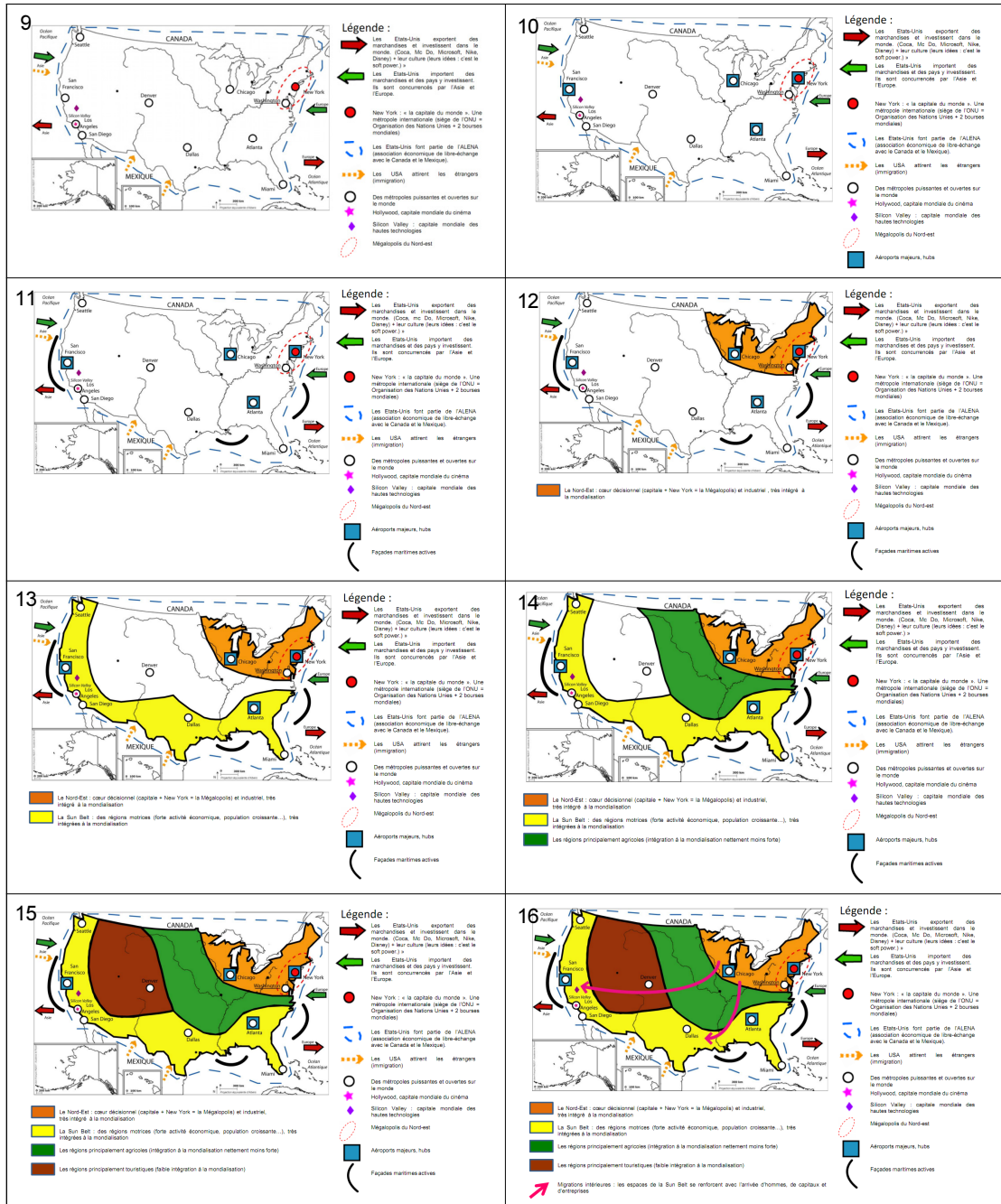


그림 2. 크로키의 방법과 절차 사례 (2)

의 이해로 알려져 있는데(이상균, 2012), 지리 크로키의 성격과 활용사례를 통해 프랑스인들이 추구하는 지리교육의 정신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 지리교육에서 핵심역량에 근접하는 활동으로 인

식되고 있는 크로키는 유용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근대 프랑스 지리교육의 전통과도 서로 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이 논문은 오늘날 프랑스 지리교육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크로키 출현의 역사적 배경, 제도상의 위상 및 비중,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보불전쟁에서의 패배 후 프랑스 지리교육에서는 지도 읽기라는 기능적 측면의 유용성이 중요한 관점으로 인식되었는데, R. Brunet의 책은 그러한 근대 프랑스 지리교육의 정신을 근간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활용되고 있는 크로키의 성격과 방법은 브뤼네가 그의 책에서 구상해놓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브뤼네의 책 뒷부분에서 저자가 크로키를 시연하는 기법에 관하여, 그리고 데생의 어려움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을 통해 브뤼네가 크로키를 지리수업을 위한 매체로 구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쉽게 짐작이 된다(Armand, 1963).

크로키의 제도적 위상 및 비중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보불전쟁 패배 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지리와 역사가 자매분야가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역사교사가 지리도 함께 가르치는 전통이 생겼다. 나중에는 지리 전공자도 배출되기 시작하였지만, 오늘날까지 프랑스에서는 지리나 역사 전공자 이외에 두 분야의 경계를 걸치는 역사-지리 전공자도 존재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역사와 지리가 같은 분야로 묶여 있는 것은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크로키는 이러한 역사-지리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주된 평가 틀로 정착되었다.

한편, 프랑스 지리수업에서 크로키는 수업의 마무리 활동으로 활용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교사는 평상시에 학생들의 학업성취 여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또한, 지리교과서 단위 구성을 보면 크로키가 각 단원의 후반부에 학습 후 정리활동으로 다뤄질 수 있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 지리교육에서 크로키는 학습의 정리활동으로서, 그리고 주된 평가 틀로 정착되어 비중있게 활용되고 있다.

크로키 고유의 지도학적 표현 수단으로서의 성격과 활용과 관련하여, 크로키는 ‘공간조직의 이해’라고 하는 프랑스 지리교육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학습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크로키의 성격은 프랑스 지리교육에서 크로키가 핵심역량에 근접하는 학습활동으로 인식되

고 활용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한국과 프랑스는 지리교육의 출발점과 발달 과정, 그리고 교육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지리교육과정을 체계적,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지리교육에 관하여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 이기주의를 떠나서 지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교육적 가치가 공유되어야 하며, 지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크로키의 기능적 측면은 우리 학계에서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정 지리지식을 학습하고 시험에 대비한 문제 풀이식 학습이 아닌, 지리적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크로키 활용 수업안이 우리의 지리교육과정 상에서 적용·구현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사료된다.

註

- 1) Roger Brunet의 책이 불어로 출간되기 3년 전인 1959년에 같은 출판사(Paris: Soci t  d'Edition d'Enseignement Sup rieur)에서 이미 영어로 출간된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학계에서는 1962년도에 불어판이 출간된 이후야 P guy(1962), Armand(1963) 등에 의해 이 책의 내용, 출간 배경 및 의의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2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 2) Roser Brunet(1931~)는 현대 프랑스 지리학 발전에 기여도가 큰 대표적인 지리학자이다. Brunet는 1965년에 ‘농촌 툴루즈(Les campagnes toulousaines)’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Toulouse 대학(1957-1966)과 Reims대학(1966-1976)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학계에 기여한 Brunet의 업적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학술지 *l'Espace g ographique*(1972)와 *Mappemonde*(1986)를 창간하고 저널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다(Allemand, 2007).
- 3) R. Brunet의 책은 크게 4개 파트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파트는 크로키의 본질과 내용, 두 번째 파트는 크로키 작성법, 세 번째 파트는 크로키에 들어가는 문양 유형, 네 번째 파트는 크로키의 특수한 관점에 대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표현해야 하는 대

상들의 복잡성 여유를 막론하고 모든 크로키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을 왜곡하거나 은폐함 없이 단순화시키고 도식화해야 한다. 크로키는 엄밀하고 정확해야 하며, 또한 가능하다면 연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범례는 간결해야 한다.”

- 4)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80년대 초 무렵부터 프랑스 학계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디닥띠끄(Didactique)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인식되었던 지식은 강의자 중심의 지식이었는데, 디닥띠끄 이론에 의하면, 지식은 강의자 입장에서 지식과 학습자 입장에서 지식으로 구분된다. 지리교육 분야에서도 Le Roux(2003)의 연구를 시작으로 디닥띠끄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편, 70년대 무렵 프랑스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주목을 받았는데, 브뤼네가 제시한 학습자 중심의 지리크로키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여 지리수업의 한 양식으로 정착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1977년 이후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학습자 입장에서 그들이 배우게 될 능력과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허정철, 2002). 요컨대, 70년대에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관한 논의는 80년대 초에 이르러 디닥띠끄 이론으로 완성되었다.
- 5) 프랑스 초등학교 지리교육은 실제 풍경으로부터 추상적인 지도로 어떻게 변환되는가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도읽기 등 분석적인 학습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된다.
- 6) 이 논문에서 제시한 크로키의 활용사례는 연구자가 2012년 1월 11일에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Giberville 소재 에밀줄라 중학교(Collège Emile Zola)를 방문하여 3학년 지리 수업을 참관 후 담당 교사(Olivier Gard, 역사-지리 교사)로부터 받은 자료임. 오늘날 프랑스 지리교육에서 크로키는 이미 수업의 한 양식과 문화로 뿌리를 내려 시기별, 지역별, 학년별, 교사 개인의 특성에 상관없이 크로키의 양식과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다.

참고문헌

- 권정화, 2005,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파주: 한울아카데미.
- 김주환·오금숙, 1997, “중학생의 지도그리기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연구,” 국토지리학회지, 29(1), 1-16.
- 문남철, 2002, “프랑스 중학교 지리교육의 내용구성과 학습지도방법,” 국토지리학회지, 36(4), 265-282.
- 박진영·이보영, 2011, “예술계 고등학교 지리 수업 방향 탐색: 이미지 맵 그리기 수업을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53-168.
- 윤옥경, 2010, “환경지도 제작활동의 환경교육 및 지리교육적 함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동네 환경지도 제작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2), 121-133.
- 윤옥경, 2013, “지도그리기 활동을 통한 지도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 지도그리기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3(2), 23-36.
- 이간용, 2013, “프랑스의 지리 평가 특성 분석: 바칼로레아 지리 시험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5), 786-801.
- 이상균, 2009, “말하기와 글쓰기 형식의 프랑스 지리교육: 누벨칼레도니의 누메아 고등학교 지리수업을 사례로,” 청주지리, 21, 131-147.
- 이상균 역, 2009, “프랑스와 영국에서의 중등 지리교육의 목적: 19-20세기 중반 시기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3), 273-288 (Graves, N.J., 1957, Some historical and comparative aspects of the teaching of geography in French public secondary schools during the 19th and 20th centuries, London University).
- 이상균, 2010a, “프랑스 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지리탐구논리와 공화국의 시민의식 형성,”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균, 2010b, “현대 프랑스 지리교육의 연구동향: 정-프랑스어 떼민느 교수와의 대담,”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2), 199-206.
- 이상균·권정화, 2011, “프랑스 지리교육사 150년의 전통과 최근 동향, 그리고 전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85-205.
- 이상균, 2012, 「프랑스 지리교육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이상균·정프랑수아 페민느, 2014, “최근 프랑스 지리 교육 과정 개정 동향과 지리과 핵심역량,” 한국지리환경 교육학회지, 22(1), 45-56.

허경철, 2002,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비교 연구(IV):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Adoumié, V., 2001, *Enseigner la Géographie au Lycée*, Paris: Hachette.

Allemand, S., 2007, *Comment je Suis Devenu Géographe*, Paris: Le Cavalier Bleu.

Armand, G., 1963, Le Croquis de Géographie Régionale et Économique, *Revue de géographie alpine*, 51(1), 187-188.

Audigier, F., Guilloteau, F., Lion, G., Masson, M., and River, R., 2005, *L'épreuve sur dossier au CAPES d'histoire-géographie*, Ballan-Miré: Seli Arsan.

Brunet, R., 1962, *Le Croquis de Géographie Régionale et Économique*, Paris: Société d'Édition d'Enseignement Supérieur.

Graves N.J., 1957, Some historical and comparative aspects of the teaching of geography in French public secondary schools during the 19th and 20th centuries, Thesis (M.A.), University of London.

Ivernel, M., Villemagne, B., Carol, A., Frémont, A., Marchand, L., Martinetti, F., Mougenet, P., Muller, D., Olive, V., Pasqualini, P., Richard, Y., Rubio-Daumas, A.M., Ruhlmann, J., Vautier, S., and Widemann, T., 2011, *Histoire-Géographie 4*, Paris: Hatier.

Joyeux, A., Chemin, A., Gasnier, A., and Gaundin, C., 2007, *Géographie 1re*, Paris: Hachette.

Lefort, I., 1992, *La Lettre et L'esprit: Géographie Scolaire et Géographie Savante en France, 1870-1970*, Paris:

Éditions du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Le Roux, A., 2003, *Didactique de la Géographie*, Presse universitaire de Caen.

Marie, V., Lucas, N., Hardouin, M., and Thémines, J.F., 2011, *La carte dans tous ses états: Observer, innover, convaincre*, Paris: le Manuscrit.

Péguy, C.-P., 1962, Le croquis de géographie régionale et économique, *Noroi*, 35, 346-347.

Robic, M.-C., and Rosenberg, M., 2016, *Géographier Aujourd'hui: Enseigner la Géographie au Collège et au Lycée*, Paris: ADAPT Editions.

Sierra, P., 2011, *La Géographie: Concepts, Savoirs et Enseignements*, Paris: Armand Colin.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roquis>(2017년 11월 20일 최종 접속)

교신 : 마갈리 아흐두앙, 35043, 프랑스 헨스 세텍스 쌍말로 153, 브르타뉴 교사양성전문대학원 지리·지역개발 전공 (이메일: magali.hardouin@espe-bretagne.fr)

Correspond : Magali Hardouin, Maître de Conférence-HDR de géographie et aménagement / UMR ESO, ESPE de Bretagne, Site de RENNES, 153, rue Saint-Malo, CS 54310, 35043 RENNES Cedex, France (Email: magali.hardouin@espe-bretagne.fr)

투 고 일: 2017년 11월 23일
심사완료일: 2017년 11월 30일
투고확정일: 2017년 12월 6일